

석사학위 논문

##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이 행 미

2011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선생님

본 연구는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 세계의 내적 변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염상섭 소설의 독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생명’ 자체의 함의를 살피기보다는, 자아 또는 개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제한적으로 이해했다. 또한 염상섭의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자아의 성격 및 소설적 성취를 서구의 근대적 개념을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다양한 사상들의 영향과 수용자로서의 염상섭의 주체적인 면모를 간과했다. 따라서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나는 생명의 의미는 당대의 지적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그의 유학 시기가 다이쇼 시대였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사상계의 핵심 개념이었던 ‘생명’을 중심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생명을 그 이외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생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염상섭은 생명을 영원히 창조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자 이러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은 다이쇼 생명주의의 핵심을 이뤘던 베르그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베르그송 사상이 일본의 작가들에게 다양하게 재해석되

있듯, 염상섭 또한 능동적인 자기화 과정을 거쳐 특유의 생명의식을 정립했다. 염상섭 문학의 생명의식은 개체적 차원에서 나타나던 데서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염상섭은 생명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서술 방식을 고민하였다. 1920년대 초의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 서술에 천착했다면, 1920년대 중반 전후부터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객관적인 서술태도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객관화가 시도되고 초기소설의 특징과 채도일 기간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랑과 죄』 까지를 초기소설로 규정하고, 생명의식의 변모양상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920년대 초에 발표된 염상섭 소설은 개체의 생명을 억압하는 세계로 말미암아 우울하거나 좌절한 인물들의 내면에 천착하여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형상화한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죽음과 그 그림자」의 화자는 생활과 운명에 타협하는 삶을 거부하고, 삶에 대한 자아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때 성찰의 과정은 타인과 세계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아는 내면에 침잠하거나 폐쇄적인 속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내면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은 주관의 과잉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생명을 억압하는 세계에 대한 성찰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야」은 앞의 두 작품에 비해 허구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기계적 인생관과 창조적 생명관의 대립과 충돌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E선생」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개체의 생명을 억압하는 기계적 인생관은 「제야」에서는 유전의 문제로, 「E선생」에서는 생명의 창조성을 부정하고 물질화시키는 학교 현실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물의 노력 및 좌절의 과정을 통해 기계적 인생관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이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은 개체의 생명 발현을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바라기」, 「너희들은 무엇을 어땠느냐」는 한 인물의 내면

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던 경향에서 벗어나 서술자가 전면  
에 등장하여 여러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진정성을 상실한 인물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는 개체의 생명  
발현은 개인의 교양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만세전」은 개체의 생명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자  
아 중심적인 생활을 살아갈 것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데, 이와 같은  
결말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작품은  
1922년에 발표된 「모지」에 이어 1924년에 완성된다는 점에서 주  
인공의 내면에 천착하는 서술 방식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동시에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개체의 생명 발현과 세  
계의 각성을 연계하여 다루고자 한 「만세전」의 주제의식을 효과적  
으로 나타낸다.

나아가 염상섭은 구체적인 현실을 인식하면서 현실 개혁의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생명 의식이 개체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  
상을 띠는 작품들을 발표한다. 「난 어머니」, 「윤전기」는 개체적  
삶이 갖는 한계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진주  
는 주었느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사회를 발견하면서,  
현실타파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인물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며, 이상과 현  
실의 대립에 따른 비극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한편 염상섭의 재도  
일기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 실험과 조선의 현실과 민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 세계의 변모 양상에 중요한 기점  
이 된다. 「남충서」와 『사랑과 죄』는 생명 의식이 개체의 문제를  
포괄하면서 민족과 사회를 발견하는 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 염상섭은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총체적  
으로 구현하면서도 개체의 고뇌를 간과하지 않는다. 예술·연애 등을  
통해 생명을 추구하며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  
과 민족을 재발견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며 생  
명의 의미는 ‘희생적 사랑’으로 재해석된다.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을 살펴보는 관점은 서구의 근대적 관념을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없었던 염상섭 작품에 나타난 자아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의 문학의 내적 변화과정을 규명해준다. 아울러 작가의식과 창작방법을 연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내재적 가치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유기적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